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새 길 찾을 위기 돌파형 리더 필요"

전주매일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음 2월 21일) 제29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혁신도시 '살기 좋은 곳'

국토부 발표 지역물품 구매 · 정주여건 입주기업 · 지역인재채용률 등 전 분야 '상위'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지표에서 '전북 혁신도시'가 2021년 한해 지역물품 구매, 정주여건, 입주기업, 지역인재채용 채용률 등 전 분야에서 상위권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혁신도시별로 1년 동안의 각종지표 조사·분석을 통해 혁신도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통계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물품 구매'에서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총 구매금액은 3,372억원이며, 그 중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이 1,043억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국 2위, 구매율은 31.0%로 전국 1위이다.

이어, '정주여건 달성률'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9,236세대 공급, 교육·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한 결과, 달성인구 2만9,080명으로 목표인구 2만8,837명 대비 100.8%로 전국 2위을 달성했다.

'입주기업'은 공공기관 연관기업인 전문·기술 서비스업종 105개(44.7%), 식품연구개발 등 제조업(25%) 등이 입주했으며, 지난해 8월 전북테크비즈센터 개관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 31개사가 입주해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은 235개사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또, '가족동반 이주율'은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5개(초2, 중2, 고1), 3040인구 비중이 높은 혁신도시 이주인구 특성을 고려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수 있는 맞춤형 정주여건 인프라 확충(9개 1,559억원)을 통한 인구유인 전략으로 가족동반 이주율 75.8%로 전국 3위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율'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인재채용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2021년도에는 전년도 98명 대비에서 48명이 증가한 146명이 채용돼 도내 지역인재 채용율을 높여 전국 5위를 나타냈다.

특히, 전북도는 2021년 혁신도시 주요성과에 대해 신문광고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2022년에도 전북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주관 투자유치설명회(2022년 10월) 및 산학연 클러스터 내·외 입주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지원으로 전북 혁신도시를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협업해 오는 5월 4일 '2022년 전북도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예산을 투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으로등 정주여건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혁신도시가 각종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것은 2021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준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도를 주축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가 살기좋은 도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자치경찰 CI선포 및 슬로건 제막식을 전북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22일 개최했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등이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도민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가까이 다가갈 것"

전북자치경찰, CI선포 · 슬로건 제막식 개최

영문 이니셜 · 좋은 소식 가져다주는 까치 형상화 "올해 목표,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Jeollabuk-do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가 도민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자치경찰 CI선포 및 슬로건 제막식을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22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송지용 도의회 의장, 문승우 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및 위원회의 협약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 박오상 센터장, TBN 전북교통방송 이정상 사장 및 도로교통공단 박경민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CI공모전은 자치경찰 출범의 사실상 원년인 2022년을 맞이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50일간 진행했는데, 총 61점이나 되는 아이디어 작품을 접수해 자치경찰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에 선정한 CI는 전북도의 영문 이니셜인 'J', 'B'와 전북도 도조(道鳥)인 까치를 하나의 조형으로 표현해 전북도를 친밀하게 지키는 자치경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는 날개를 힘차게 펼쳐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맞춤형 치안을 상징하는 모습을 구현했다.

색상은 전북도 심볼마크 컬러(빨, 노, 청, 녹)를 베이스로 해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를 담으려는 의지를 표현, 도민과 함께하고 싶은 전북 자치경찰의 의미를 담아냈다.

또한, 지난해 6월, 대국민 공모로 선정한 슬로건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는 송하진 도지사의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쓴 글씨를 현판에 새겨 도청 공연장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설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꼭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으며, 오늘 공개한 CI와 슬로건처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CI선포와 함께, "2022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 및 협약기관과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해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도,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 희망기업 모집

전북도가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경쟁력 강화, 제품판로 개척, 신규고객 확보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2억원(올해 6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술사업화 제품분석 및 개발지원(2건),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6건), ▲신시장창출 지원(2건),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애로해소 지원(14건) 등을 추진한다.

'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는 시제품·시금형 개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 분야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지원'에서는 수출경험이 부족한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영업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통해 계약의 全단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거래선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pms.jiat.re.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유호상기자